

# 박근혜 “재구속 수용못해 재판부 불신” 첫 법정발언

### 법정서 처음으로 직접 입 열어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단이 사인의 의사를 전해왔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16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여간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자신의 80차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 부정할 정당한 받거나 들어 준 사실이 없다”며 직접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 변호인단은 사인의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여론 등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제게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무게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 사실로 재판을 넘겨져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 바른정당, 보수통합 추진위 참여 결론 못내

### “당헌당규상 하루전 통보...한국당 통추위 성격 명확하지 않아”

바른정당이 16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김영우 최고위원이 제안한 통추위 참여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 의결을 하려면 하루 전에 사무총장을 통해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속의를 해 의결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오늘 통추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에서 통추위가 구성됐는데 이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가령 한국당 당론인



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통추위를 구성하려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는 통추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사실상 통추위 구성안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스

## 김동철 “5·18특별법, 신속 통과해 내년 처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 국회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 내년에는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츠센터 사진전’에 참석, 축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약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발포명령자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헬기사격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한다. 전투기 대가 사실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5·18정신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법안 통과를 위해 이러한 사진전이 개최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37년이 지났지만 그만큼 5·18 진상규명이 현재에도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 ‘재판부 불신’ 박발언에 법조계 격앙... “전직 대통령 맞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 발언을 두고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지세력을 규합해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발언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열게 될 이득에 불응표를 던지는 이들도 많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자신의 80차 공판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언했다.

자신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 역시 같은 취지 입장을 밝히고 전원 사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

신분에 주목, 비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는 게 놀랍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당신이 판사 맞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일반인들이 왕왕 있는데 이는 전혀 규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너무 감정적 으로 반응한 것 같다”며 “재판부가 나를 공정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갑자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권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변호사와 협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문제를 따져 묻던 탄핵 심판 당시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준비된 폭탄 발언”이라며 “변호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것과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현재가 당시 결국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며 ‘이번에는 법원을 한번 흔들보겠다는 시도 같은데 득 될 게 하나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 깎아내리는 발언” 비판 “탄핵심판 현재 흔들기와 유사...도움 안돼”

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주장해서, 법률과 증거에 따른 역사적인 재판을 받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그 기대에 맞게 변호인들이 재고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 박지원, 한국당에 “DJ-盧 원조 적폐청산?...생떼쓰면 코미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자유한국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의 ‘원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생떼를 쓰면 정당한 요구도 코미디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적폐 청산을 한다더니 DJ·노무현 정부도 하지며 생떼를 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도 수사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박연



차 회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는 일관된 진술에 의거해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정부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혹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도 발견했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더라도 됐다”고 반문했다.

뉴스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의힘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 장성황룡강

2017

## 노란꽃잔치

10.13.~10.29. 장성군 황룡강 일원

**개막식 10.13 (18:00) 장성공설운동장**

쿠폰을 구매 하셔서 할인권 6매, 시식권 1매, 합인혜택 받으시고, 칼라TV 당첨의 행운을 잡아 보세요!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옐로우 시티

장성군

# 제1회 백양 단풍축제

2017.10.27~10.29

장성 백암산·백양사 일원

군민노래자랑 10.26 (18:00) 공설운동장

컬그룹 “엘리스” 등 초청가수 출연

| 주최 및 주관 |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

| 후원 | 전남남도 한국관광공사